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청년 큐티 나눔	금요일 오후 9시	Zoom
한민 말씀방	매일	카카오톡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주일 예배 봉사위원

	06. 12	06. 19	06. 26
대 표 기 도	장래황 성도	김효종 집사	김영희 권사
성 경 봉 독	장래황 성도	김효종 집사	김영희 권사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회(히10:25)”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 : YouTube에서 „브레멘 한민교회“ 검색하세요.

교회소식

6월 축복인사 - 더 큰 축복의 사람이 되세요!(성도 간에)
 섬기는 자가 되자!(자신에게)

1. 성령강림절 -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2. 6월 한 달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매일이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 나눔의 시간 - 이상호 목사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마스크 착용 - 예배시간 마스크 착용은 자율 선택입니다.
5. 코로나 대응 - Luca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교회창립 | 1983년 10월 23일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합계(Euro)	



담임목사 **이상호 (Sang Ho Rhee)**
 예배만주 **조영재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성령강림절

- 찬 양 Gemeindelied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184장 **다같이**
 기 도 Gebet 정용현 안수집사
 성경봉독 Predigttext 고전 12 : 1 - 3(신p277) ...정용현 안수집사
 (1.Korinther 12:1-3)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설 교 Predigt 신앙의 변곡점! **이상호 목사**
 * 파송찬양 Abschlusslied **선한 능력으로** **다같이**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장래황 성도

† 기도제목

1. 성령의 은사를 통해 강건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소서
2. 한민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학업과 생업에 기쁨 부어 주소서
3. 우크라이나와 세계 평화와 경제 안정 및 지방선거(6월1일) 위해
4. 김선택, 장보경(형가리) 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죽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

동양인이자 시작장애인이라는 핸디캡을 딛고 미국 정책 차관보까지 지낸 고(故) 강영우 박사에 대한 일화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강영우 박사는 2011년 말에 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2012년 2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담당 의사는 수술에 성공하면 2년 정도 더 살 수 있다면서 수술을 권장했지만 강영우 박사는 수술제의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이 성공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렇게까지 목숨을 연명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술을 포기한 그는 이후 가까운 지인들에게 틈만 나면 이메을 보내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담담하게 전했는데 그 메일이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지금은 사랑하는 이들과 주변을 정리하고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까지 허락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 뵙고 인사 드려야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제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죽음은 공포요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것은 결코 절망이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넉넉한 모습으로 살다가 넉넉하게 떠날 수 있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삶으로 증명하라 / 이찬수 목사
(분당 우리교회 담임)

*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내 쉬는 마지막 호흡은 바로 천국에서 극한의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 Sidlow, Baxter(신학자) -